

빅카인즈를 활용한 자영업의 위기 요인 도출과 해결책 탐색

김재호*

*청운대학교 무역물류학과

e-mail:kais@jaehokim@chungwoon.ac.kr

Deriving risk factors for self-employment and exploring solutions using Big Kinds

Jae-Ho Kim

*Dept. of Trade & Logistics,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최근 자영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거치며 움추려들었던 자영업자들은 팬데믹 이후에 회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때 보다 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의 일자리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자영업의 높은 비중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맞닥뜨리게 될 현실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 문제의 해결을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상황과 현실의 운인 그리고 해결책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언론에 보도된 자영업에 대한 키워드를 중앙지, 경제지, 지방지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지에서 더 높은 가중치로 자영업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앙지가 자영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를 살펴보면 원인과 해결책을 모두 담고 있는 키워드들이 대거 제시되었는데, 배달료, 과다수수료와 같은 것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그 외 자영업의 문제는 구조적이고 종합적이면서도 업종별로 다르게 지역별로도 차별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향후 자영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지역별, 업종별, 유형별 분류를 통해 세부적면서 눈높이에 맞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1. 서론

2024년 하반기 이후 뉴스 등에서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해 자주 보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정부의 지원에 의한 정책 대출이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이자 및 원금 상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며, 더욱이 국내 경기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소비 패턴이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간 것이다. 빠른 배송을 앞세운 쿠팡의 주도 아래 온라인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 편의성을 확보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오프라인 자영업자와는 점점 더 큰 차이를 벌리고 있다. 셋째, 금리의 문제이다. 정책 대출로 1% 정도 었던 이자가 5%에 이르면서 수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넷째, 소비의 침체이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퇴근 후 회식문화가 많이 퇴색했으며, 특히 1차 2차로 이어지던 문화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의 경우 저녁시간에 2회전 정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1회 정도가 끝나는 8시 무렵 이후에 손님이 없다.

여섯째, 청년층의 감소이다. 베이비부머에 비해 청년층의 인구는 50%로 줄었다. 이로 인해 자영업 시장에서 실험적인 창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영업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그 해결안도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 탄력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자영업의 문제나 해결책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노동중점에서 사회의 문화적 관점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되는 해결책도 종합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일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자영업의 위기 심화도를 파악하고, 그 위기의 요인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툴인 빅카인즈를 활용했다. 기간은 2024년 으로 한정했으며, 중앙지와 경제지를 나누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자영업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는 법률적으로 보면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를 의미하며, 근로기분법상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1] 자영업자는 종업원인 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자영자’를 총칭한다. 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주’와 의미가 동일하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영세자영업자를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한다. 소득기준으로 보면 영세자영업자를 연간 매출액 4,800만 원미만이거나 월평균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다.[2]

2.2 분석결과와 함의

1) 경제지 연관어 분석

빅카인즈[3] 분석에서는 제시한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중 100개를 추출하여 키워드를 추출한다.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그리고 지방지로 구분하여 연관어를 살펴보았다.



<그림 1> 빅카인즈 경제지 연관어 분석

경제지를 중심으로 자영업의 연관어를 보면 소상공인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고물가, 취업자, 외식업, 고령층, 청년층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고급리가 조금

높은 비중으로 연관되고 있다. 더 작게는 저출생, 출구전략, 코로나 등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을 보통 외식업으로 보고 있으며, 고물가 등의 이유로 어렵고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지원과 퇴출전략 등이 연관어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자영업의 상황을 알 수 있다.

2) 중앙지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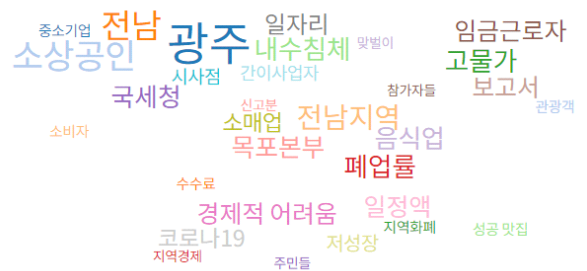


<그림 2> 빅카인즈 중앙지 분석

중앙지의 연관어 검색을 보면 소상공인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급리 등이 나타나고 있다. 소매업 등의 키워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중앙지는 자영업 어려움의 결과를 취업자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영업의 어려움을 고급리, 고물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금융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지 연관어 분석



<그림 3> 빅카인즈 지방지 분석

지방지의 연관검색어를 살펴보면 앞의 중앙지나 경제지와 비교해 부정적인 연관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률, 내수 침체, 경제적 어려움 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물가, 지역경제, 일자리 등이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자영업자들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

